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 달의 지면

-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3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 04 교육과 학문/문화평
- 05 교육과 스승
- 06 교육과 세계/교육현장노트
- 07 교육과 공동체
- 08 문화 탐방

학사 일정

6월

- 5(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마감
- 6(토) 현충일(공휴일)
- 10(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 12(금) 2020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 22(월)~26(금) 1학기 기말고사
- 29(월) 여름방학 시작

7월

- 1(수)~3(금) 완제본 논문 접수(예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 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정태구
- 주 간 박종훈
- 간 사 문장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 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초점

2020학년도 1학기 '초점' 지면은 '미래교육과 교사'라는 주제로 '2019 KU 예비교사 엑스포'에서 특강을 진행한 전문가 5인과의 인터뷰 기사를 연속해서 게재합니다.

수업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 협업

■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경력 36년째인 교사로 정보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에 관심이 있어 고려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고, 바쁘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인사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쁩니다. 요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량에 대한 교육계 및 사회 전반의 관심과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

■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SW 수업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장관상 수상을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SW 교육을 시작했음에도 학생들이 인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수업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SW 교육은 문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인지 부담, SW 언어에 대한 인지 부담, SW 자체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인지 부담 등이 존재하는데 이중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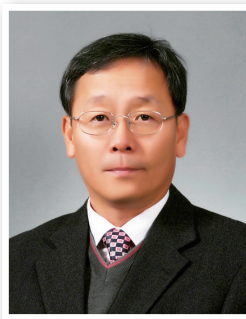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SW 교육을 수월성 교육이 아닌 정보 소양으로 가르치기 위해 수업을 재설계한 후 3~4년에 걸쳐 적용과 보완을 계속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학생들과 즐겁게 수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매시간의 수업 상황을 기록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쉬웠던 차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SW 교육 수업 우수 사례를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 수업을 통해 미래역량인 '협업'은 어떻게 길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 교육도 바뀌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역량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 능력, 혼자만의 힘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업' 능력 등입니다.

저 역시 SW 교육을 좀 더 잘해보기 위해 협업을 바탕으로 수업 설계를 했습니다. 특히 SW 수업에서 학업 성취도 편차가 큰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에 몰입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때까지 어려움을 겪던 몇 가지 상황에 대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첫째, 협업을 위한 모둠 구성 방법을 유연하게 했습니다. 각 모둠원은 학업 성취도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둠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은 불



유승욱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교사
이학박사

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모둠 인원 및 구성 방법을 변경하고, 교사의 교수 철학, 학생의 희망 사항 등을 반영합니다. 모둠 구성을 바꾸면 역할이 바뀌고, 그에 따라 경쟁과 협업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모둠 구성 방법이 유연해지면 학생들은 협업을 통해 서로 가르쳐주고 토론합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며 메타인지가 형성됩니다.

둘째, 수업 중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 했습니다. 협업이 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질 경우 수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학습자가 주도하는 협업 학습 과정 중 교사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 해결 방법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학생들이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학생의 학습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예측하고 치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결과물을 기다리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도전할 만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시했습니다. 실제 학생들은 유치할 정도의 간단한 과제라도 스스로 해결할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교사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학습자가 도전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하는 일,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과 지식을 안내하는 일, 적절한 평가 방법을 사전에 제시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평가를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끊임없는 연찬의 결과이고,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학생들이 협업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탈무드의 명언 '물고기를 주면 한 번 먹을 것을 주는 것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 먹을 것이다.'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협업 능력은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의 역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교사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학습자가 그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협업을 통해 찾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자료와 정보가 넘쳐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수업에서 학생들의 '협업'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평가에 대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식이 곱지 않는데 이는 평가 결과에 대한 납득이 부족할 때 일어납니다. 특히 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모둠원끼리도 불만이 많습니

다. 요즘 학교 현장은 과정중심 평가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결과보다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협업의 경우 모둠원 각자의 활동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들여다보며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둠 구성원은 다른 모둠원과 협력하며 동시에 경쟁관계로 수월성뿐만 아니라 모둠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평가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고, 모든 단계를 공개하고 공유하면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담보가 이루어집니다.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가 아닌 미래의 역량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는 필연적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수업에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협력하며 과제 해결 과정을 즐기고 있다면 이는 교사가 꿈꾸는 이상이며 존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절로 협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을뿐더러 평가는 수시로 공정성에 의심을 받습니다. 경험이 많은 교사에게도 매일매일이 도전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복한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PRIDE
CLUB

지금, 당신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대학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열어갈 고려대학교가 원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으로
국제전문가 양성



맞춤형 장학프로그램을
통한 우수인재
후원



초일류 석학들의
창의연구
(Creative Research) 지원



미래를 개척할 인프라
(교육연구시설, 첨단실험
시설 등) 구축

정기기부신청서

기부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법적 생년월일 기재						
구분	☐ 교우 입학연도 대학(원) ☐ 교직원		년	과	☐ 교우 학생성명 대학(원) 과(과정) ☐ 교대를 사랑하는 사람	
기부금액	☐ 1구좌 ☐ 3구좌 ☐ 5구좌 ☐ 10구좌 ☐ 30구좌 ☐ 기타()구좌		※1구좌 매월 1만원			
자동이체 정보	은행명	은행	예금주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기부 권유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등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에 제공되며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부증로 후에도 보관됩니다. 금융결제원 및 은행은 고객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이체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에 관한 위 사항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정기기부를 신청합니다.

작성하신 신청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신 후 1666-3403(문자수신 전용)으로 보내주세요.

2020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입학 구술시험



5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윤초우 선교육관 103호를 비롯한 16개 강의실 및 연구실에서 ‘2020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입학 구술시험’이 진행되었다.

본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강의실 소독, 열화상기 검사, 체온계 검사, 손 소독, 에탄올 세정 티슈 1인 1매 제공 등의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 대기 장소를 배정하였다.

구술시험 당일, 지원자들은 지정된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수험번호대로 시험에 임하였다. 전공별로 세부 평가 내용은 다르지만 대체로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한 심층 지식, 향후 연구 계획, 전공 적합성 등에 대한 질의가 주요 내용이었다.

구술시험 결과는 서류 평가 점수와 함께 최종 합격자 선발 여부에 반영된다. 합격 여부는 오는 6월 12일(금)부터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예정이다.

김재민 기자 latinkerbella@korea.ac.kr

연구지도 보고서 및 연구사례 보고서 제출 안내

이번 2020학년도 1학기에 연구지도 과목을 수강하는 재학생은 오는 6월 8일(월)부터 12일(금) 17시까지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연구지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기 중 연구지도 과목을 통해 지도 받은 내용을 연구지도 보고서 양식에 기재하여 지도교수의 서명 혹은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연구지도 보고서 양식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연구지도 보고서는 매학기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에 연구지도 과목을 수강하였으나 연구지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원생의 경우 반드시 5학기에 4학기 때 제출하지 못한 연구지도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구지도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제20기 교육경영 AMP 입학식



지난 5월 6일(수) 오전 11시 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제20기 교육경영 AMP 입학식’이 있었다(2020년 3월 1일부터 ‘교육경영 최고위과정’은 ‘교육경영 AMP’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두 달가량 미루어진 이번 입학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입학식에는 교육대학원 정태구 원장, 박종훈 부원장, 교육경영 AMP 교우회 김한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채진 담임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20기 교육경영 AMP에는 총

41명의 원우가 입학하였다.

정태구 원장은 입학식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육계가 큰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고려대학교 교육경영 과정은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 고려대학교 교육경영 과정이 제공하는 훌륭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입학식사에 이어 교육경영 AMP 교우회 김한우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

다. 김한우 회장은 “우리 교우회가 올해로 20년이 된 만큼 20기는 더욱 뜻깊은 기수라고 할 수 있다.”라며, “20기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앞으로 우리 교우회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든 축사가 끝난 후에는 교직원 소개와 학교 배지 수여식이 진행되었고,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입학식 1부가 마무리되었다. 2부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오찬을 나누었으며, 이어 3부에서는 학사 안내 및 원우 간 소개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한편, 제20기 교육경영 AMP는 2021년 2월까지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교육계 CEO들을 대상으로 경영의 기법과 리더십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2020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논문 상담실 이용 안내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상담실에서는 원우들이 논문 작성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과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상담 내용

- 학술 자료 검색 방법 안내
-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 안내
- 설문지 검토 및 수정
- 통계 분석 방법 안내 및 분석 결과 해석
- 논문 작성 및 참고문헌 작성 방법

△ 이용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에 운영 중. 구체적인 운영 시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매월 변경하여 공지하고 있으므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http://edugrad.korea.ac.kr)

edugrad.korea.ac.kr) 공지사항을 수시 확인해야 함.

△ 이용 안내

- 1) 면담: 최소 이틀 전에 논문 상담실 이메일(consult1374@hanmail.net)을 통해 상담을 예약한 후 방문(휴대전화 번호와 상담 내용 기입)
- 2) 이메일 상담: 논문 상담실 이메일(consult1374@hanmail.net)로 아래 상담 내용을 적어 보냄. 답변은 24시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주말 제외).
 - 이메일 상담 시 필수 기입 내용
 - ①전공 및 이름 ②연구 주제 ③연구 목적 ④연구 대상(데이터) ⑤계획한 연구 방법 ⑥질문 사항

※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논문 상담실(02-3290-1374)에 전화 문의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2020학년도 1학기 제2차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지난 5월 15일(금) 윤초우선교육관 306호 컴퓨터실에서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제2차 적·인성 검사가 시행되었다. 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 8월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만 응시 가능하였으며, 각 타임별 응시 인원을 축소하여 운영되었다. 검사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에 관한 총 3개 세트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다.

대통령령 제241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별표1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3항 관련) 『2.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에 따라 2013년 8월 졸업자부터 필히

적·인성 검사에 응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교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신청은 포털에 로그인 후 ‘정보생활-교직사항-적·인성검사신청’에서 할 수 있다. 예정된 신청 기간 및 검사 일자는 다음과 같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018학번 이후 학생은 학부생의 경우 1학년에 1회 응시, 3학년 1학기까지 1회 응시 총 2회 응시, 교육대학원생은 1~2학기 중 1회 응시, 4학기까지 1회 응시 총 2회 응시해야 한다. 12학번까지는 1회, 13학번부터는 2회 응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적·인성 검사는 학기별로 1회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한다. 일반대학 교직 이수 학생 선발시 시행한 적·인성 검사에서 적합을 받은 학생은 적·인성 검사 1회를 응시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수료자로 적·인성 검사에 응시하지 않았으나 2020년 8월 졸업하는 경우도 필히 응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직원(02-3290-1333~1335)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제19기 교육경영 최고위과정 수료식

지난 5월 28일(목) 오전 11시 교우회관 2층 프라자홀에서 ‘제19기 교육경영 최고위과정 수료식’이 있었다. 수료식은 정태구 교육대학원장, 교육경영 최고위과정 김한우 교우회장, 이강규 명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주 담임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번 19기 교육경영 최고위과정의 수료생은 총 20명이며 수료증과 자격패, 공로패, 표창장 및 우정상 등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태구 원장은 수료식사에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 좋은 수업을 듣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많은 경험을 쌓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러한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더 나은 자신으로 만들어 주고, 또 찬란하고 행복한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김한우 교우회장은 축사에서 “19기는 저에게 특별히 소중한 기수이다. 그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와 교직원 여러분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교우회 입성을

축하하며, 앞으로 교우회 활동을 통해 더 큰 화합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라는 당부를 남겼다.

특별히 수료생 대표 답사에서는 윤용현 원우가 “이렇게 헤어짐에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도 고려대의 울타리 안에서 상생하는 19기가 되길 소망한다.”라며, “우리가 직면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트렌드를 캐치해 돌파할 방법을 찾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며 상생하는 19기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학교 발전 기금 약정서 및 증서 전달식에서는 제19기 교육경영 최고위과정 원우들이 마음을 모아 1,000만 원을 발전 기금으로 기탁했다.

김재민 기자 latinkerbella@korea.ac.kr

교육과 이슈



김민희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교수

2017년 어느 학회 뉴스레터 논단에 'Re: 교육복지'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이 글을 썼던 것은 교육부에서 2017년 3월 발표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보도자료 때문이었다. 당시 교육부가 이러한 과제를 추진한 이유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의제'에 취약 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방안을 포함하면서 교육복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만들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 내에 교육복지정책국이 설치되었고 교육복지과를 설치했으며 교육복지사업을 비롯한 교육급여 지원 등 취약 계층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취약 계층 학생 지원 중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2003년 특별 교부금 국가 시책 사업에서 교육복지투자지원사업(이하 교복투사업)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지원 대상, 지원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면서 2011년 지방으로 이양되기까지 대표적인 취약 계층 학생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복우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바뀌었고, 17개 시·도 교육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의 자율적인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따른 한계가 노출되면서 다시 중앙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7년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발표되었던 것이다.

당시 작성했던 논문에서 기존 지방 이양 교육복지 사업의 한계를 적시하였었다. 새로운 교육복지사업에서는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취약 계층 학생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계하여 진정성 있는 교육복지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었다. 그 사이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었고, 교육 급여가 인상되었으며 교육비 지원도 확대되는 등 취약 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 민간에서만 시행했던 장학금 형태의 초·중등학생 지원도 늘어나 안정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그런데 3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당시 제시했던 방향과 과제가 얼마나 실현되었을까. 외연적으로는 취약 계층 학생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 굳이 예전의 원고를 들추어본 것도 이러한 부족함과 찌뭉침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재정 지원만 한다고 취약 계층 아이들이 지닌 학습, 심리, 정서, 건강 등의 복합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취약 계층 학생들은 사회경제적 격차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다. 학비는 지원받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고 불리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얹친 데 얹친 격으로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취약 계층 학생들의 건강권, 돌봄 및 학습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부모나 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은 돌봄, 온라인 학습 참여, 급식 지원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교육복지를 연구하고 취약 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답답함과 한계는 자꾸 드러나는 상황이다. 직접적으로 학생을 만나는 학교 교사나 교육 복지사들이 체감하는 무력감은 더 클 것이다. 도대체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 나의 성장을 지켜보아 주고 늘 격려해주는 지지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취약 계층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계속 이야기가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논의하여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야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인 격차가 교육격차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끊어낼 수 있을지, 느슨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위험하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다. 아픈 마음은 전체적인 인격 형성과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쳐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며, 건강하지 못한 신체적 문제는 향후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로 드러나고 있으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헤매는 형국인 것 같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며 학교 급식을 지원받지 못해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고 하니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나 인재양성이나 하는 거창한 구호 앞에서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이 사라지고 섬세한 지원이 묻혀버리지 않도록 다시 정신을 차려 본다. 그런 측면에서 취약 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정치권력에 따라서 교육복지사업의 외형적 지원만 드러내는 일은 없어야겠다. 취약 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다시 강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취약 계층 학생 지원의 목적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취약 계층, 교육 소외 학생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총체적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학습권뿐만 아니라 건강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면 복지와는 별도로 취약 계층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취약 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정적 측면에서 통합 지원은 취약 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즉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산출할 기준 마련에서 시작할 수 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 급식 등 지금도 교육복지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교육비만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형식에 만족하는 것이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포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교육 급여 수준을 더 확대하거나, 학생의 필요에 맞도록 교육비 지원, 장학금 지원, 사립비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셋째, 단위 학교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취약 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비) 통합 지원, 취약 계

층 학생에게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의 필요에 대해 가장 가까이 있는 단위 학교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수업 과정에서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일, 학습, 심리, 정서, 건강 등 학생의 필요에 맞게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 학교 현장의 참여가 없이는 여전히 형식적인 차원에 머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취약 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섬세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취약 계층 학생들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어쩌면 취약 계층 학생에게는 일회성의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더 필요할지 모른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체계가 매우 세심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민간 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자기 성장 기록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꿈 장학금 지원 사업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출산 시대,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소중하다. 선별하여 지원하되 분리하지 않고,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재촉하지 않으며,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시선이 머물렀으면 좋겠다.

어린 시절 들었던 동요가 계속 머리에 남는다. 적어도 어른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걱정 가득한 시를 짓는 일은 없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다, 걱정이다, 걱정이다, 걱정이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 다. 집에 가면 맞기만 한다. 맨날. 맨날. 내 속에는 죽는 생각만 난다.”
- 백창우 동요집(2002) -

교육단신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 20일(수) 오전 9시부터 6월 18일(목) 오후 6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마감일인 6월 18일(목)은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날은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원되며, 지원액은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까지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고 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본인은 물론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화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단, 장애 학생에게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1~3구간 학생은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2회까지 C학점을 받더라도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등을 통해 이 가운데 약 89만 명의 대학생들이 약 1조 5,816억 원(1인 평균 약 178만 원)의 국가장학금(유형, 다자녀)을 지원받았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제5차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는 5월 1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호 안건으로는 등교 개학 대비 학부모 안심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첫째, 등교 개학 대비 철저한 방역 준비를 한다. 개학 전 모든 학교의 방역을 실시하고(급식 시설·기구 포함), 개학 후에도 손잡이, 책상 등 접촉이 빈번한 장소는 일상 소독(일회 이상)을 실시하여 철저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체계를 갖추게 한다. 둘째,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 학교 주변 부지를 정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사고 걱정 없는 등하굣길을 조성한다. 셋째, 학교 시설 안전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학생들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석면 제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학부모, 환경 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공사 시 사전사후 관리도 철저히 한다.

제2호 안건으로 포용 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근 선거 연령 하향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청소년이 삶의 주인으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역할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라는 비전하에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 정책 기반 재정립의 4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다.

제3호 안건으로는 반복 민원 해소 및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안은 이미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반복민원심의회를 신설하는 등, 반복 민원에 대한 3단계 심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http://moe.go.kr) 홈페이지 내 보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교육부, 이러닝세계화사업(ODA) 참여 기업 공개모집

교육부는 '이러닝세계화사업(이하 ODA)'의 하나로 시행 중인 해외교원 연수에 국내의 우수한 에듀테크 기업(제품)을 선발하여 2년간 참여할 수 있도록 LEAD(Leading Educators for Achieving e-learning Development) 이노베이션 그룹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ODA는 국제사회의 한국 이러닝 경험 전수 요청에 따라, 협력국 대상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 및 기자재 지원, 교원정책 개발 대상 연수 실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번 공모는 2020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미래교육 기술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에듀테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내 에듀테크 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대표 제품 1개에 대한 참가 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였다. 공모 기간은 2020.5.13(수)~5.26. (화)이었으며, 지원 기업들은 APEC국제교육협력원 전자메일(ace@akob.org)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신청서 접수 이후 선정평가를 거쳐 10개 내외의 기업(제품)이 선발된다. 평가 항목은 총 47개(총 100점)로, 에듀테크 및 이러닝 유관대회 수상 제품은 가산점(최대 5점)을 받는다.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비전 및 사회공헌 의지(20점) △제품 서비스의 우수성(30점) △교육현장의 활용성(30점) △지속가능성(20점)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국내 우수 에듀테크 기업은 LEAD 이노베이션 그룹이 되며, 해당 제품(10개 내외)은 LEAD 아이템으로 선정되어 교육부 ODA의 협력국 교원 연수에 소개·활용된다. (단, 현지연수 참여 시 출장비 자비 부담) 또한, LEAD 이노베이션 그룹 소속 기업들은 제품 평가회 등을 통해 국내외 교원의 제품 사용 평가 및 추가 수요 관련 아이디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제품 기능 개선 및 신규 제품 개발 시에 참고할 수 있다.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온라인 개학 등으로 최근 K-에듀테크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이번 공모를 통해 국내 우수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협력국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도 교육청별 이러닝세계화 선도 교사단(LEAD 교사단)을 발족하고, 민간학 전문가(LEAD 프로페셔널) 및 에듀테크 기업(LEAD 이노베이션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모델을 개발·도입·확산하고 관련 경험을 전수하는 등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민 기자 latinkerbella@korea.ac.kr

교육과 학문

수학교사의 담론적 역량: 초연결사회에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최상호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연구교수

주변의 모든 것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미래 사회에 우리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소통, 공유, 협업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 과정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교사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교수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실 맥락과 학생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교사의 교수법적 역량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교수법적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수학적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이하 PCK)이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지식은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PCK,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PCK는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과 교수법 차원의 지식이 결합된 개념이다. 수학과 PCK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내용 중심의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사가 수학 수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교수 방법, 학생 이해, 수업 상황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실제 수업에서 발현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수학과 PCK는 교수법에 영향을 주고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시해야 하는지 등과 같이 교수학적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동적인 참여가 있다면, 교사가 수업 전에 생각하고 있던 수업 계획 관련 지식은 학생들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소

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교수법 개발에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교수법의 지식 측면과 함께 실제 수업 과정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실행 측면을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교사의 담론적 역량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교사의 담론적 역량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다양한 담론을 조정하여 수학적으로 유의미한 담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량이다. 이는 학생들과 소통·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교실 문화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담론적 역량은 학생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뿐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통, 공유, 협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사의 담론적 역량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교수법을 다년간 실천해 온 경력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담론적 역량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력교사에는 교사 부임 초기부터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한 교사로 20년 이상 자신의 교수법을 개발하고 수정한 교사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연구 대상 교사의 한 학기 수업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담론 개발 목적에 따라 사회(수학)적 규범, 개념 도입, 문제 해결로 한 학기를 나눌 수 있었다. 사회(수학)적 규범은 학생들의 참여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기 초에 교사-학생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수학 교실에서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사회(수학)적 규범 형성과 유지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

를 형성한 후에 학생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규범을 만들었다. 교사는 다양한 학생들이 규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학생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하면서 규범을 찾고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규범을 모든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정해진 규범을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었다. 규범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즉 규범 위반에 대한 책임도 공유하였다. 규범을 만들고 난 후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교실 문화와 학생들의 심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이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신뢰 관계 형성과 수업 참여를 격려하고 유익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 학기 동안 규범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연구 대상 교사는 각 단원의 개념을 도입할 때마다 단원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1시간 동안 학생들과 소통을 하며 개념을 도입하였다. 개념 도입은 소인수 분해, 정수와 유리수, 문자와 식 단원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적절한 단어와 그림을 선택하여 이용하였다. 또한, 학생 개인이 이전 교육과정에서 경험하거나 실생활에서 경험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과 이전 지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략을 실행한 후 학생의 생각으로부터 의미를 만들기 위해 통합하고 연결하였다.

문제 해결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담론 개발이 있었다. 이 중에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문장제의 경우, 교사는 문장제에서 핵심적인 수학적 개념을 찾거나 다양한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도 주어진 상황과 맥락을 변경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고 강조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담론적 역량의 구체화를 통해 교수학적 내용 지식을 실행·통합할 수 있는 담론적 역량의 구조와 순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다. ‘수학과 PCK’를 실제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역동적인 의사소통 활동을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규범의 형성 및 유지, 개념 도입, 수학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교수법을 위한 지식과 실행을 통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담론적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교사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PCK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교사교육 과정에 대해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실행 중심의 교수법에 대한 교사교육 과정을 개발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교사-학생 간의 신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수업 참여를 위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와 노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다. 교사의 끊임없는 자기 연찬은 학생의 소통, 공유, 협업 능력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담론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교육신문 문화평

위기의 학교(The School Report, 2007)
닉 데이비스 지음, 이병곤 옮김, 우리교육

‘위기의 학교’는 영국의 닉 데이비스 기자가 1999년 9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가디언》에 연재한 글을 묶은 학교 현장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가 당시 영국 사회에 불러일으킨 반향은 상당했다. 교육부 고위 관료, 수백 명의 교사와 교육학자들이 모여 이 보고서가 파헤친 영국 교육 현실에 대해 토론했고, 보고서의 주된 비판 대상이었던 데이비드 블러켓 당시 교육부 장관은 직접 3차례에

걸쳐 반박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닉 데이비스가 제시하는 첫 번째 주장은 ‘(학생과 가정의) 빈곤은 교육의 실패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어쩌면 그다지 새로운 것 없어 보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의 동어반복으로 느껴진다. 데이비드 블러켓 전 장관 역시 자신의 첫 번째 반박문을 “교육에 있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굳이 “1만 5,000단어에 이르는 기사를 게재할 필요는 없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핵심은 연이은 두 번째 지적이다. 저자는 영국 교육부가 그러한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커녕 현실을 방치하고, 나아가 심화시키고 있음을 비판한다. 닉 데이비스가 그려내는 비극은 1975년, 영국에 ‘종합중등학교’라는 새로운 교육 체제가 편성되며 시작된다. 이전까지 영국의 학교 편제는 11세 때부터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지원 학교를 이원화하는, 거의 신분제에 가까운 것이었다. 반면 새로이 도입된 종합중등학교는 학생의 계급과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동등한 입학 자격을 부여했다. “영국 교육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받는 이러한 시도는 영국 공교육 역사가 진일보하는 전

환점으로 높은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표면적인 ‘평등’이 도래했을망정 계급에 따라 이원화된 교육 제도는 여전히 공고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교육의 시장화 전략’이다. 마가렛 대처 집권 이후 영국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교육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기 시작한다. 방법은 간단했다. 첫째, 각 지방 교육청의 학생 배정권을 박탈하고 학부모에게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맡겼다. 둘째, 각 학교에 전국학력평가시험을 강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순위표를 공개했다. 셋째, 지원하는 학생 수에 따라 학교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짐작하는 그대로이다. ‘학교 선택의 자유’는 명문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학부모에게만, ‘학생 선발의 자유’는 지원자 수가 모집정원을 상회하는 학교에만 한정된 ‘자유’였다.

여기까지가 교육부의 ‘방치’에 해당된다면,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심화’에 해당된다. 영국의 사립학교는 법적으로 ‘자선 단체’의 지위를 갖는데, 이는 사학이 주식, 부동산 등에 부과되는 모든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 거의 모든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또한 1981년 대처 총리는 ‘사립학

교 대상 공적 자금 지원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학생들의 등록금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차등 지원이 문제인 이유는, 교육이 ‘권리’를 넘어 ‘권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정치 고문들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영국군 장성 9명 중 7명, 사관학교 출신 엘리트 장교 180명 중 120명, 최고위직 법관 39명 중 33명, 장관 18명 중 9명은 모두 사립학교 출신이었다. 또한 사립학교 출신의 75%가 전문직이나 관리·경영 직종에 종사하는 반면, 공립학교 출신은 40%밖에 되지 않는다. 사립학교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 중 7%이다.

이 책은 국내에 처음 번역된 2007년, 영국의 과거가 소위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도입이 가져올 국내 교육의 미래라는 우려 속에 패화가 된 바 있다. 지금의 현실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가난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영국 교육부 관료의 말은 예전 우리 교육에서도 하나의 슬로건과 같은 것이었다. 수많은 ‘개천의 용’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위기의 학교’는, 달라진 건 ‘용’이 아니라 ‘개천’이라고 생각하

는 교육자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문장원 기자 creep0927@korea.ac.kr

가난은 변명이 될 수 없다?

교육과 스승

‘모두의 행복’을 위한 과학 꿈나무 육성을 위해 힘쓰는 안달 선생님



안달
삼덕초등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2의 과학입국(科學立國)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초등학교 교사 안달입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 삼덕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올해의 과학 교사’, 2019년 교육부와 조선일보사가 선정한 ‘올해의 스승’으로 선정된 덕에 여러분들과 지면으로나마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학 전도사로서 일평생 과학 인재 양성에 헌신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최근 과학교육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STEAM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 Maker & Creator 활동 등 20년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과학교육 활동과 수업을 진행해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제가 과학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Science Star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초·중·고 학생의 장래희망 순위를 보면 과학자가 초등학교생 사이에서는 1.3%로 13위를 차지하고,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과학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앞으로도 과학을 토대로 현재의 문제점들을 이겨내 더욱 발전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과학 꿈나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큰 위기감과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Science Star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Science Star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1980년대나 1990년대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조사를 보면 항상 과학자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1981년과 1990년에는 각각 21.2%, 25.5%로 1위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 시절의 과학 꿈나무들이 2020년 현재, 과학자가 되어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00년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생 100명 중 1~2명의 친구들만이 과학자의 꿈을 꾸고 있고, 중학생에게서는 그마저도 사라진 것이지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인구는 물론,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과학 꿈나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교사의 입장에서 그 문제점을 교육에서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과학자라는 꿈을 꾸며 과학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해답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 활동과 과학 수업을 접하여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대중음악의 BTS, 축구의 손흥민 선수, 요리의 백종원 대표이사’처럼 과학에서도 ‘Science Star’를 배출한다면 한순간에 과학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과학 꿈나무들이 나타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판을 만들기 위해 ‘Science Star 만들기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제 손으로 ‘Science Star’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다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STEAM 교육이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융합 교육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STEAM 교육이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올해 10년 차가 되네요. 처음 STEAM 교육이 시작될 때 다양한 교사 연수가 만들어지고, 이곳저곳에서 융합과학교육을 위한 과학교구, 지도 방법들이 만들어지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은 교



육 현장에서 STEAM 교육이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STEAM 교육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도하셨든 혹은 의도하지 않으셨든 간에 대부분의 수업들이 사실상 STEAM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TEAM은 곧 융합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활동들로 아이들과 선생님이 재미있는 수업을 하셨다면 그 수업은 이미 STEAM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모두 잘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STEAM과 융합이라는 단어 자체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지금처럼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이를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란 말이 많이 들립니다. 다양한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크리에이터, 게임 리터러시 등과 접목한 흥미로운 수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과학교육과 더불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직업 찾기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뒤늦게 적성과 흥미를 알게 되어 인생의 진로를 멀리 돌아가거나, 아니면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후배님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행복한 직업을 통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여유로움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진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삶을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업을 기획·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이머나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안돼!” 혹은 “네가?”라고 말하는 어른이 아니라, “그래. 그럼 해보고 결정하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직업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모두를 경험하여, 크고 넓은 시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Maker & Creator 프로젝트’와 같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희망 직업과 관련된 활동을 직접 해 보고(Maker), 이 과정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Creator)하여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을 통해 선생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육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과학교육, 저만의 교육목표는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가지는 교육입니다. 그 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꿈이어야 하고요. 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나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꿈’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사의 꿈을 꾸고 있는 미래의 선생님들, 그리고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우리 교육 동기 분들.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문제가 많다.’ 등 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풍요롭게 성장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의 크나큰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선생님을 무시한다.’ ‘선생하기 힘들다.’라는 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해보면 그 속에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기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로써 산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행복한 삶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사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꿈을 꾸세요. 그리고 이루세요. 더 행복한 선생님을!”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교육과 세계



유지연

Learning Sciences PhD Candidate,
McGill University

전통적인 의미에서 ‘문해력’이란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과 관련된 인간의 인지 기능을 일컫는 용어였으나, 과학 기술의 진보와 인터넷의 보급은 훨씬 다양한 측면에서 문해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의미를 충실히 확장시켰다. 즉, 과학기술 문해력, 금융 문해력, 다문화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데이터 문해력 등 특정 분야의 역량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문해력’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으로 일상생활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과 경험을 통한 교육 형태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캐나다의 문해력 관련 정책은 크게 (1) 정규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과 (2)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는 문해력을 우리나라의 국어과 과목에 해당하는 영어나 불어 교과목에 제한해서 다루기보다, 다양한 교과목에 두루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캐나다 공립교육 시스템 내에서 지역사회 연계는 이미 어느 정도 보편화 되어 있으나, 디지털 문해력 등이 필수 역량으로 대두되면서 민간 기업이 교육에 기여하는 추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I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문해력 교육

캐나다 교사들은 자신의 전담 교과목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주/준주 교육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문해력을 학생들이 증진시킬 수 있도록 수업 시간 내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주/준주 교육부나 지역 교육청은 교사들이 수업을 하면서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문해력의 주제 탐색 및 계획에 따른 정보를 안내서 발간, 교사 연수, 워크숍 등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인터넷 플랫폼에 업로드하거나, 교사 학습 공동체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학생들이 필수 역량으로 갖추어야 할 각종 분야의 문해력은 학생들이 내용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경험적으로 적절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적 변화보다는 방법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조성하는 것으로 교수의 초점이 이동하게 되었다. 캐나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센터(Canada's Centre for Digital and Media Literacy)는 디지털 문해력은 단발성으로 제공되는 학습 프로그램을 뛰어 넘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디지털 문해력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다른 분야의 문해력 역시 마찬가지이며, 캐나다 전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교육정책으로 그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는 ‘과학기술 문해력’을 21세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보고, 학교급과 학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 교육과정에 이를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과학기술 문해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용 자체에 변화를 주기보다 교육과정 내 ‘탐구 기반 학습(inquiry-based learning)’을 도입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수 전략에 대한 변화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학생이 실생활과 밀접한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학급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더 발전시켜 나간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이러한 강력한 학습 경험이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서 학습에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고 평가한다.

이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가 탐구 기반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유연한 교수 설계’를 꼽은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실행 가능한 혁신: 교육과정과 평가의 변화(Enabling Innovation: Transforming Curriculum and Assessment)’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는 학습 목표나 수업 내용에 따라 주제적으로 수업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 방법도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장기 프로젝트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강의 대신 다양한 체험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여 규범화된 학습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의 문해력 관련 교육정책이 대부분 방법적인 부분에 변화를 꾀하고는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을 아주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교과별로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는 세부 문해력의 교육 지침과 안내서도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된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에서는 최근 불어, 건강 및 체육, 사회 교과와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금융 문해력에 대한 교육도 일부 변화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금융 문해력: 적용 범위와 절차(Financial Literacy: Scope and Sequence of Expectations)’를 발간하여 학년별 금융 문해력 적용 수업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4-8학년은 필수 교과에, 9-12학년은 선택 교과에 금융 문해력 교육이 포함된다. 또한, 7, 8학년에는 애플리케이션 ‘eMe’를 무료로 공급하며, 은행 계좌 비밀번호 관리하기, 세금 및 봉사로 계산하기, 물건 할인율에 따른 구매가 계산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금융 문해력을 요구하는 활동을 미리 연습하거나, ‘교육과정 연결’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은 언어 교과, 예술 교과, 건강 및 체육 교과 등과 연계하여 교육하는 것이 권장된다.

I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문해력 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문해력 교육은 문자 자체를 읽고 해석하는 기초 문해력과 코딩 프로그램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주를 이룬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지역의 공공 도서관이 문해력 향상을 위한 여름 캠프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찍이 그 효과가 입증되어 다수의 주/준주 정부가 이를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여름 캠프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가하는 방식이며, 읽기와 쓰기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문해력 자체를 개인의 기본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 같은 관점은 원주민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이민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월간 도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상상력 도서관(Imagination Library)’은 원주민 아동들의 독서 습관 향상을 위해 5세 이하 아동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퀘벡 주의 프레이저 힉슨 연구소는 도서관 시스템을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자녀가 자주 방문하는 병원과 같은 기관에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1972년 발표된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공립학교에서 이민 가정의 학생들이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코딩 및 디지털 기술이 강조되면서 캐나다 연방 정부는 혁신 기술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캔코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21개의 지역사회 기반 민간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해당 주/준주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코딩의 시간(The Hour of Code)’과 같은 대회는 현재 최대 규모의 코딩 대회로 자리 잡고 있다.



교육현장 노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꾸어버린 학교 현장



윤창식

체육교육과 졸업/서울 백운중학교

4월 9일 전국의 고3과 중3 학생들이 먼저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다. 학교 현장에서 자연스레 중3 담임 교사들은 온라인 개학의 선발대가 되었다. “일어난 사람들, 출석 댓글 달아주세요.” 이때 학교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카카오톡이다. 온라인 개학 이후 서울 백운중학교 3학년 6반 담임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24명 아이들의 기상 알람 역할을 한다. 온라인 수업을 시행한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게 낯설기만 하다.

온라인 수업을 하기 시작하며 교무실은 콜센터와 비슷한 행국을 띄기도 한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출석 댓글을 달지 않은 아이들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무슨 과목 이수를 안 했다고 하시네.”, “무슨 과목 진도율이 100퍼센트가 아니라고 하시네.”, “무슨 과목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시네.”라며 수시로 아이들과 전화를 한다. 아이들과의 잦은 전화로 담임 선생님들 귀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꽂혀있게 되었고, 잠시 수업 준비차 나갔다가 교무실로 돌아오면 모두들 화면을 보고 허공에 다 말을 하는 것 같아 살짝 무서울 때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빈 복도를 걷고 있으면 갑자기 교실에서 소리가 날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무섭다. 분명히 아이들은 없는데 교실에서 소리가 난다. 가까이 가 창문 틈으로 교실 안을 보면 사실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고 계신다. 교무실에서는 영상을 찍거나 수업 녹음을 하는 것에 여러 제약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없는 빈 교실로 가고 수업 준비를 하신다. 개인 카메라 두 대를 놓고 영상을 찍어 편집하시는 분도 있고, 피피티를 만들어 직접 녹음하시는 분도 있다. 물론

학습 플랫폼에 있는 영상을 끌어오시는 분도 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같은 학교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 같은 과목이어도 아이들이 수강하는 선생님에 따라 수업이 달라질 수 있다. 한 학교 내에서도 이처럼 많은 차이가 생기는데 학교 간 차이도 클 것이라 생각된다.

나의 교과목인 체육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하기가 굉장히 난감하다. 대부분의 학교 체육 수업은 아이들의 개인적 성과보다는 공동체적 성과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체득하며 학습하는 것이 주가 된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는 제약이 많다. 인원이 한정되고 공간적 제약이 존재한다. 여러 제약을 고려하며 동시에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고 만들어야 한다. 끌어올 플랫폼 자료가 많으면 훨씬 수월할 수도 있었지만 체육 수업은 끌어올 플랫폼 자료도 한정적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전국에 있는 체육 선생님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료를 수합하고 각자 수업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결국 선생님 스스로 자신만의 학습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따

라서 체육 수업도 선생님 개인 역량에 따라 수업 모습이 크게 차이가 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5월에도 등교개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처음과 두 번째의 등교개학 연기 발표와 마찬가지로 현재 정확한 등교개학 시기의 발표 역시 교장 일주일도 안 되는 시점에는 현장으로 전달될 것 같다. 학교현장에서는 내려오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발맞추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적 급변성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조금은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동시에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학교 현장의 모습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생님들은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등임용시험 준비 책에서만 배웠던 21세기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특히 몸으로 느끼고 있다. K방역이 전 세계의 모범 교과서이듯 K교육 역시 학교 현장에 있는 모든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들의 호흡과 노력으로 한 장씩 한 장씩 새로운 교과서를 쓰고 있다. 이 자부심으로 학교 현장에 있는 우리는 늘 그랬듯, 이겨내고 극복할 것이다.

학교현장 탐방

‘국제정치중점과정’으로 국제적 활동가를 육성하는 동아여자고등학교



최선

동아여자고등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동아여자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여자고등학교에서 국제정치중점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최선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동아여자고등학교는 2020년 2월, 35회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하늘과 맞닿을 것 같은 산 중턱에서 학생들은 맑은 공기와 자연의 소리를 벗삼아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과 그 꿈을 지지하는 선생님들이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동아여자고등학교입니다.

동아여자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동아여자고등학교는 학생들을 지역 사회 및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는 한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교는 인성 교육과 세계적 민주 시민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을 ‘삶’의 단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천적 인재로서의 역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본교의 구성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여자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정치중점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중점학교’라고 했을 때 과학중점학교를 많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예술·외국어·융합·정보 등 다

양한 분야의 교과 영역이 중점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점학교가 활성화됨으로써 다양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교는 다가오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2018년에 국제정치중점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교는 국제정치중점과정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영역의 ‘전문교과 I-국제계열’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교과 I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편성되는 교육과정이지만 본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교과 I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를 넓히고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선택과목 및 진로선택과목 국제계열의 전문교과들 가운데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하여 활동 중심의 수업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지식의 확장은 물론, 교실 안의 지식을 교실 밖에서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살아있는 지식’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학생들이 국제기구 혹은 비정부기구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는 국제정치중점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국제정치중점과정에서의 배움을 통해 세상의 여러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대안까지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국제적 활동가’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초석을 함께 다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정치중점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수업과 달리 중점과정의 수업은 학생 활동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수업 중 학생들은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개인별 혹은 모둠별로 탐구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고 동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사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이런 활동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학생들은 지식을 스스로 찾아가는 방법을 터득



하고 있으며, 이제는 제법 연구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둠별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어 다른 교과와 토론과 발표 수업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학급 및 학교 행사를 주체적으로 개최하여 배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 이 과정은 분명 고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주체가 되어 하나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분명 학생들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배움이 인지적 측면에서만 그치지 않고 정서적, 기능적 측면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매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중점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적·인적자원이 지방에서는 매우 귀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경험을 교사가 충족시키기 위해 교사의 개인 역량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한 인프라 확보 및 교육적 기부 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학습 경험이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2015 교육과정의 첫 세대인데, 진로선택과목의 선택이 이들의 입시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국제정치 관련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소인수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웠는데, 점수 앞에서 걱정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국제정치중점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활동 중심의 수업과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공부 시간이 짧아지고, 에너지 소비가 커서 자기 주도적 학습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은 스스로 일구어낸 결과물과 그 과정에서 배운 경험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하는 회의를 가지셨지만 현재는 교육 같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더욱 다원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 또한 보다 다양한 욕구와 열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다원화된 역량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학생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교사가 이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다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교사들이 함께 협력해 나갈 때 보다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의 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교사들의 협력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움과 역량 개발이 미래의 ‘나’가 아닌 미래의 ‘학생’을 그리며 이루어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왜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 3가지 물음을 떠올리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진 기자 dksnws61@korea.ac.kr

학생들이
국제정치중점과정에서의
배움을 통해
세상의 여러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대안까지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국제적 활동가’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초석을
함께 다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탐방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나들이 코스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공부하랴 일하랴. 그간 너무나도 바빴던 우리에게 가끔은 이렇게 야외활동을 하며 기분을 전환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혼자서 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녹음과 햇살을 만끽하며 종로구 일대를 누비다보면, 어느 순간 미소를 머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종로구를 산책하러 다 같이 떠나볼까요?

〈윤동주 문학관〉

• 장소위치: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119

•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2148-4175

〈청운문학도서관〉

• 장소위치: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36길 40

• 관람시간: 화~토 오전10시~오후10시
일 오전10시~오후7시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70-4680-4032-3

〈통인시장〉

• 장소위치: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5길 18

• 영업시간: 오전7시~오후9시(점포 별 상이)
셋째 주 일요일 시장 전체 휴무
월요일 도시락 카페 휴무

• 문의사항: 02-722-0911

〈박노수 미술관〉

• 장소위치: 서울시 종로구 옥인1길 34

•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요금: 어른 3,000원

청소년 1,800원

어린이 1,200원

• 관람문의: 02-2148-4171

‘종로’ 하면 보통 경복궁이나 광화문 광장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래에는 이뿐만 아니라 북촌과 서촌, 익선동 또한 종로구의 떠오르는 관광 명소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볼거리가 다양한 종로구는 그 인기를 반증하듯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인다. 하지만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소보다는 조금 고즈넉하고, 자연과 함께 여유를 누려볼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사람들이 많은 곳 또한 온기와 활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지만, 조용한 공간에서 여유를 가져보는 것 또한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 윤동주 문학관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윤동주, 별 헤는 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윤동주’라는 이름 석 자를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다. ‘동주’라는 영화를 계기로 그 이름과 생(生)이 더욱 유명해진 시인 윤동주. 그는 연희전문학교 재학시절 종로구 누상동에 있던 소설가 ‘김송’의 집에서 하숙생활을 했고, 인근 인왕산에 올라 시정(詩情)을 다듬었다고 전해진다. ‘별 헤는 밤’, ‘자화상’, ‘또 다른 고향’과 같은 작품들도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렇게 우리 문학사에 아름다운 시들을 남겼다. 조금 더 오래 생존했다면 더 많은 걸작들을 남겼을 텐데, 시대의 불운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12년 윤동주 문학관을 개관했다.



종로구 부암동 언덕배기에 위치한 윤동주 문학관은 인왕산 자락에 버려져 있던 청운수도가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해서 마련한 공간이다. 가압장이란 수도 시설의 일부로, 수압을 높여서 고지대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즉, 느려지는 물살에 압력을 가해 다시 힘차게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인 것이다. 문학관과 가압장,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이 조합. 새로운 건물로 지어도 되었을 문학관을 왜 굳이 가압장을 개조해서 만들었을까. 윤동주 문학관이라는 이 공간이 ‘우리 영혼의 가압장’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통해 삶에 지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이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는 계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투영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공간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감상하며 편안함을 느껴보길 바란다. 문학관을 모두 관람한 뒤에는 문학관 뒤로 펼쳐진 ‘시인의 언덕’에 올라보자. 시인의 언덕에 올라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윤동주 시인의 삶을 되새겨 보고, 자신의 삶의 자세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어떨까.

I 청운문학도서관

윤동주 문학관을 지나 언덕 위로 조금 더 올라가보자. 아주 잠깐 걷다보면 언덕 아래로 한옥이 펼쳐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도심 속에 한옥이라니. 그래도 부암동이라는 공간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어 그런지 웬지 낯설지는 않다. 한옥으로 진입하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마침내 그 한옥채 앞에 도달할 수 있다. 편액에 적힌 글자를 읽어보자. ‘청운문학도서관’이라는 일곱 글자가 우리를 반길 것이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종로구의 16번째 도서

관이며 한옥으로 지어

졌다. 문학 특성화 도

서관이기 때문에 주

로 시, 소설, 수필 위주

의 다양한 문학 도서

를 소장하고 있다. 계

단을 따라 내려왔을 때

가장 처음 마주한 한옥채가

바로 창작실과 세미나실로

사용되는 공간인데, 대

관이 없을 경우 이 공간은

열람실로 사용된다. 본

채 옆에는 자그마한 정

자가 연못 위에 세워져

있다. 이정자 옆으로 인

공폭포가 설치되어 있

어 폭포 소리를 들으며

독서할 수 있는 낭만

이 가득하다. 마당으로



이 좋다면 한옥 한 채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들려오는 소리란 자연의 소리밖에 없는 이 공간에서 독서를 하다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잡념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I 통인시장

문학관과 도서관이 언덕에 위치해 조금 힘들었지도 모르겠다. 이제 버스를 타고 경복궁 방향으로 내려가 보자. 5분 남짓한 거리에 통인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걷고 싶다면 녹음을 즐기며 도보로 이동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 통인시장은 오랜 전통의 골목형 재래시장으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하다. 추억의 간식들을 파는 가게도 있고 떡볶이에서부터 퓨전 음식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되어 있어, 복고와 현대를 동시에 느껴볼 수 있는 이색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관이나 도서관처럼 한가한 공간은 아니지만 허기를 달랠 겸 이 곳에 잠시 들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곳은 ‘도시락 카페’로 유명한데, 점심을 이용하여 음식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다.

입구에서 시장 안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점심 판매처가 있다. 이곳에서 점心和 빈 도시락을 구매한 뒤, 이 점심을 화폐 삼아 각 매장에서 원하는 음식을 교환하고 이를 도시락에 담으면 된다. 도시락을 구매한 사람에게 한해 입점할 수 있는 카페가 있으므로 식사는 그곳에서 하면 된다. 단, 점심은 평일에는 오전 11시~오후 3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만 판매하니 이 시간에 맞추어 가는 편이 좋다.

I 박노수 미술관

앞서 문학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는 미술 작품을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통인시장에서 약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박노수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사실, 이 가옥은 1937년에 지어진 건물로 당시 친일파였던 윤덕영이 자신의 딸을 위해 지은 가옥이다. 1973년에 이르러 박노수 화백이 이 가옥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40여 년 동안 그는 가족과 함께 이곳에 머무르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 박 화백은 2011년 500여 점의 작품과 490여 점의 고가구 및 고미술 그리고 1991년 서울시 문화재자료 제1호로 등록된 이 집을 종로구에 기증하였다. 이에 종로구는 이곳을 미술관으로 꾸며, 2013년 9월 ‘박노수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가옥을 재탄생시켰다.

빨간 벽돌이 인상적인 박노수 미술관은 절충식 기법으로 지어진 가옥으로, 동양과 서양의 모습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내부는 마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미술관과 달리 신발을 벗고 입실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전시실은 총 8개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 전시실은 응접실, 거실, 안방, 주방, 화실, 겸서재, 공부방, 다락방, 욕실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이는 박 화백 생전에 사용하던 공간의 명칭을 그대로 전시실 명칭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화백이 생활하던 모습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어 그 시절 화백의 시간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한편, 8월 23일(일)까지 6주년 기념전시 ‘江山淸風-맑은바람 展’이 이어져, 우리는 각 전시실에서 박 화백의 절제된 필선이 돋보이는 80년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간결한 운필, 강렬한 색감, 대담한 터치를 통해 전통 속에서도 현대적 미감을 구현해 낸 작가로 일컬어지는 박노수 화백. 그의 작품을 감상하며 미술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 보자.

가끔은 이렇게 한적한 곳에 나와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가까운 거리라도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보편화된 지금, 우리는 그 속도에 익숙해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잠시간 문명이 주는 편리함을 포기한 채 다리는 조금 아프더라도 천천히 걸어서 보자. 지금껏 보지 못 한 많은 풍경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주변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느라 그동안 너무 애쓴 우리에게 이러한 여유는 분명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종로구 산책, 짙어져 가는 녹음만큼이나 각자의 내면 또한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닌 만큼, 각자의 시간을 보냄에 있어 반드시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물론 인적이 많은 곳은 아니지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 보다 빨리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가끔은 이렇게 한적한 곳에 나와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가까운 거리라도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보편화된 지금, 우리는 그 속도에 익숙해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잠시간 문명이 주는 편리함을 포기한 채 다리는 조금 아프더라도 천천히 걸어서 보자. 지금껏 보지 못 한 많은 풍경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주변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느라 그동안 너무 애쓴 우리에게 이러한 여유는 분명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종로구 산책, 짙어져 가는 녹음만큼이나 각자의 내면 또한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닌 만큼, 각자의 시간을 보냄에 있어 반드시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물론 인적이 많은 곳은 아니지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 보다 빨리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COIN.LUNCHBOX CAFE (2F)

〈점심 판매 시간〉
● 평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 주말, 공휴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